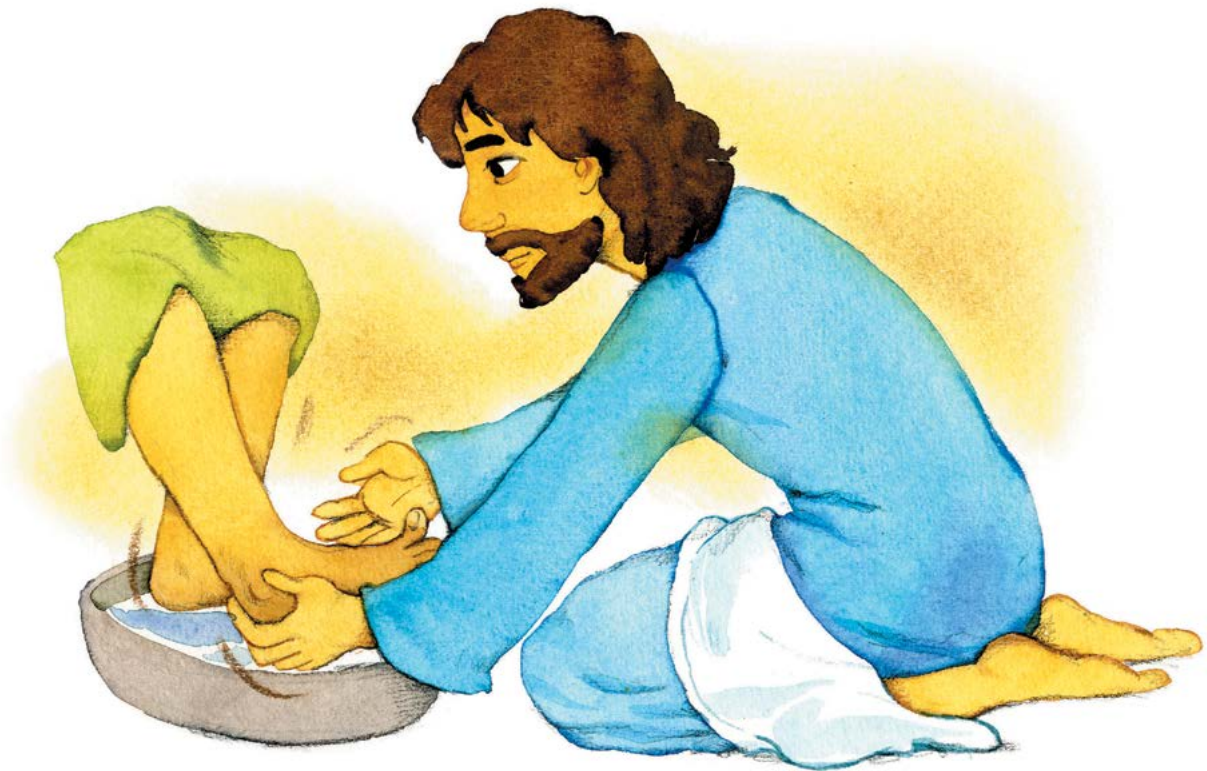


11월 22일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생각하는 아이

남우는 요즘 기분이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그림책도 찾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보고 싶은 작은아버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우는 다시 성경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이라도 씻겨 줄 수 있나 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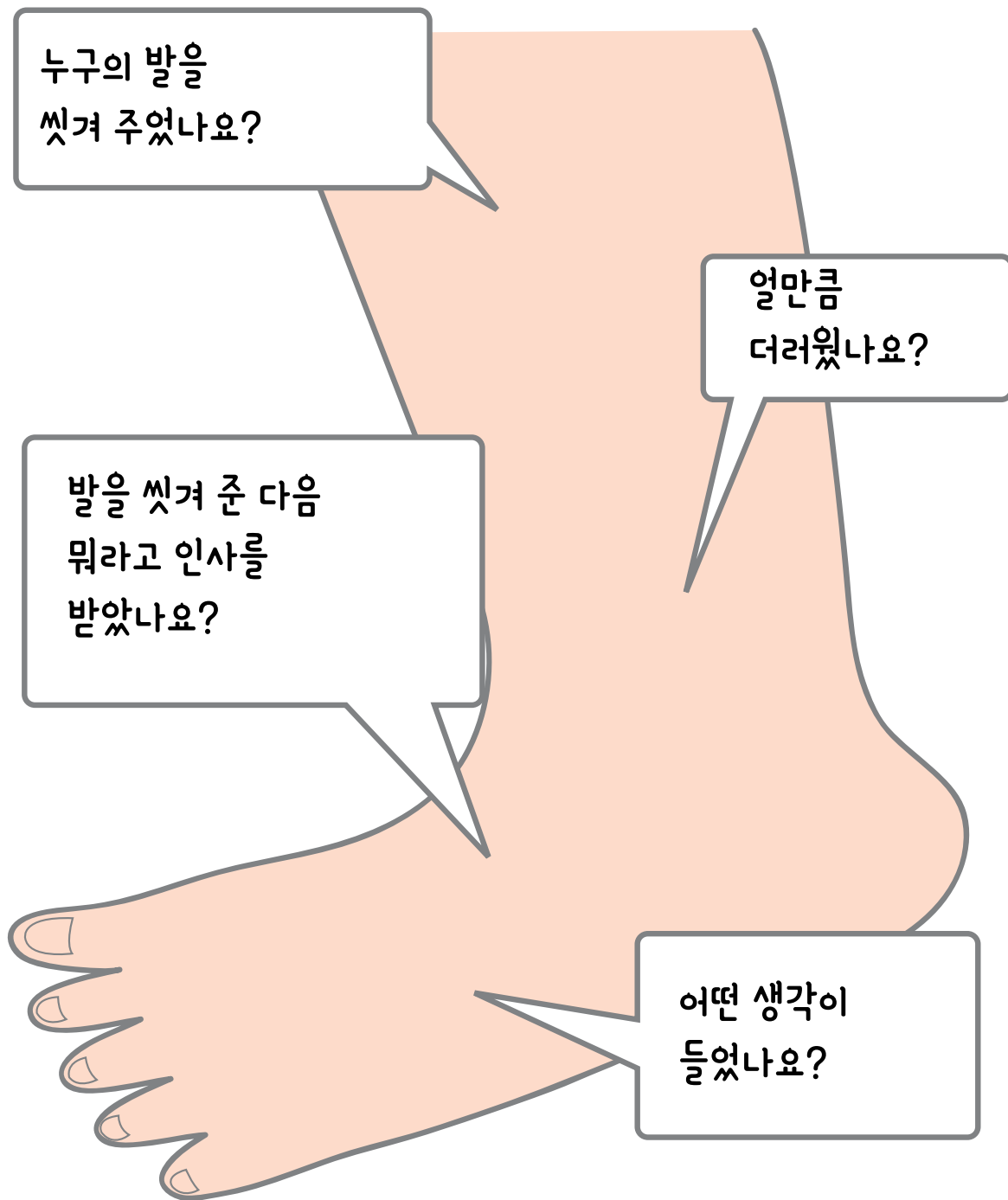
남우는 오늘 저녁에 아빠가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아빠의
발을 씻겨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 중 최고인 아빠,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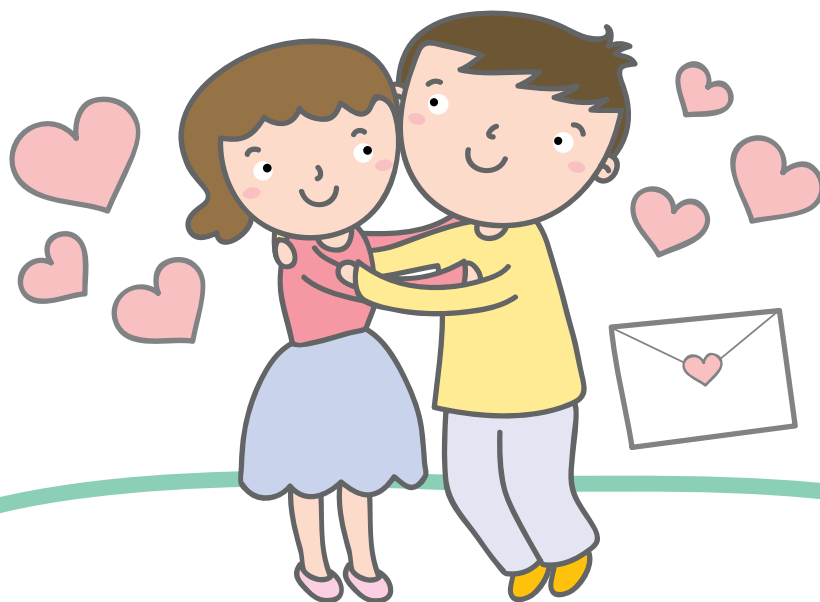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꼬옥! 안아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써 보세요.



즐거운 활동



우리의 발은 더럽지만, 서로 깨끗이
씻겨 주어요. 하얀 크레파스로 더러운
발을 깨끗이 칠하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